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의 변화

안 재 정*

- I. 머리말
- II. 청소년 선도의 의미
- III. 청소년 비행과 의식구조의 변화
- IV. 청소년 선도의 새로운 지평
- V. 맺는말

I. 머리말

필자가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의 변화”란 제하의 원고를 청탁받고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감회가 자못 착잡하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40여년간을 중고등학교의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또는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 “갓힌 자, 눌린 자, 마음 상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이란 표어를 좌우명으로 삼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일에 전념했다. 그러나 과연 청소년선도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얼마나

남겼는가? 20여년간을 교정기관에 수용된 청소년자와 불우여성들을 상대로 선교, 교화, 선도를 하여 표면상으로는 결신자(개과천선을 약속한 자)는 30여만명이요 기독교적인 세례를 받은 자는 5천여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한 그 젊은이들을 수년 후에 다시 교도소에서 만나 그들이 재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출소 후 사회적에 실패하여 필자를 찾아와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행패를 부렸을 때, 그리고 여전히 신문지상을 수많은 범죄들이 메우는 것을 나날이 접하게 될 때 그 허무함과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난 날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사회와 국가에 무익했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을 향한 마음까지 가치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심정에서 필자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따름이다.

* 한국기독교청소년선도회 명예회장

II. 청소년선도의 의미

1. 청소년이란

1910년 우리나라에 조선기독교청년회(YMCA)가 성립되면서 청소년(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이란 낱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아이와 어른뿐이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이와 어른의 중간단계로서 청소년층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었고 이와 함께 이 용어도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개념은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선거법, 형법 등 필요한 사안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이나 통상적 개념으로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국민학교 고학년부터 대학교 저학년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10대와 20대 초반을 지칭하는데, 필자도 필자의 활동과 관련해서 대략 13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한다. 이 연령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인구는 약 1천1백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약 6백만명이 학생이고 약 3백만명이 직업청소년(군인포함), 나머지 2백만 정도는 재수생 또는 무직자이다.

이 청소년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행동양태나 성격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16~19세 사이 통상 하이틴이라 부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청소년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본다. 청소년전기는 사춘기전기에 해당되는데 인생의 봄, 꽃봉오리에 비유되고 꿈나무라고도 지칭되며 변화의 가능성도 크고 화려하게 생각되지만 몹시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꽃봉오리가 피기 전 서리나 때 아닌 눈

을 맞으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성인에게서 자신의 변화에 주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성인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모든 판단(선악의 규범)이 미숙하고 외톨수이기도 하다.

하이틴이라 하는 청소년중기는 사춘기 후기에 해당한다. 에릭슨 교수는 “자기인식을 발달시키는 힘을 키우는 시기”라 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즉 자기정체감의 확립시기로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뚜렷이 인식하는 시기이다.

청소년 후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에 가까워진 성숙기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사고력이나 가치판단도 자기중심에서 탈피하며 타인과 외부 또는 사회를 이해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단순한 욕구충족보다는 가치추구로 조화된 인격을 형성해간다. 이 시기는 일찍부터 직업을 선택한 소수의 청소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다. 주체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현실과 자신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불안과 충돌이 빚어지고 이것이 내면화하면서 좌절감 또는 성취감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을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이해와 반성, 협력 하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려 한다.

이렇게 성장 단계에 따라 급격하게 변모하는 청소년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놓여있고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에 있는 등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이 단계별로 안고 있는 문제는 서로 비슷하다.

2. 비행의 개념과 원인

1) 비행의 개념

최근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동서 화해무드 조성에서 공산권의 민주화 개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사춘기 10대들의 비행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자본주의의 병이라고 불리우던 매춘, 폭력, 마약복용 등이 서구의 문물유입이라는 한 차를 타고 소련이나 동구의 청소년들에게까지 밀려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10대의 고민, 10대의 비행, 환각제 남용, 학교내·가정내 폭력, 무단가출 등 사춘기가 가져다 준 마음의 병이 심각하다. 의사가 아무리 진찰해 보아도 탈은 없는데, 아이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 못가겠다고 하여 결석을 허락해 주면 곧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다. 이런 탈은 우울증, 대인공포증, 정신분열증, 거식증(拒食症), 식욕부진, 성인거부증 등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학교기피증, 우울증 등은 때로 유흥장 출입, 본드·가스흡입으로 또는 폭력·절도·강도·강간 등으로 변형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비행이라 하면 반드시 범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이나 가치체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비행은 강도, 강간, 절도, 마약복용, 폭력 등 범죄행위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가정이탈(무단가출), 불량교우와의 교제, 태학이나 퇴학, 유해한 장소 출입, 도박, 흡연, 음

주, 무단가스나, 본드흡입, 성행위, 자살 등을 두루 일컫는다. 그러나 이런 행위도 연령층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으니 20세가 넘는 청소년후기이면 흡연, 음주, 유흥장출입 등의 행위 자체를 비행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비행이란 법률의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저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예측되는 것으로 해당연령의 청소년에게 금지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 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미묘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조기발견하기가 어렵다. 미국 알라바마주립대학의 리차드 교수는 소년원과 소년형무소에 수감된 소년범의 범죄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소년범죄자 대부분이 영양불량인데 특히 비타민B₃와 비타민B₆가 결핍되었다고 한다. 이 비타민 결핍자는 생화학적 언밸런스 문제로 난폭행동이 야기된다고 한다. 또한 상습적인 소년범죄자의 25%가 가족들 가운데 당뇨병력이 많다고 한다. 이 중에서 식품첨가물, 정제당 등 인스턴트식품 사용에 제한이 없는 가정에서는 제벌률이 34%이고 인스턴트식품 사용을 제한하는 가정에서는 14%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인공감미료나 인스턴트식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자신이 없지만 엄마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물이 청소년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범죄나 비행을 볼 때 실상 위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는다.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청소년의 교

육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환경은 또 어떤가? 청소년비행의 주요원인으로 필자는 다음을 든다.

첫째, 생리적 욕구와 사회규범 간의 모순이다. 조혼풍습이 있던 옛날에는 전혀 없던 문제로써 신체적으로는 어른과 같이 성장하여 생리적 욕구는 충일한데 통상 결혼은 20대 후반에야 이뤄진다. 더우거나 요즈음은 영양상태가 좋아져 성장은 빨라지고, 직업의 전문화로 독립을 위한 예비기간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서구같이 프리섹스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동양적 윤리에 바탕한 사회규범 때문에 생리적 욕구를 분출시키지 못하고 억압해야 하는 그 모순이 급기야 정서적인 강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향락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생리적 욕구를 부추킬 수 있는 기제는 매우 많다. 여기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다행히 약간 잃어도 금방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곧 비행, 나아가 범죄로 발전한다.

둘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이다. 청소년의 심리현상으로서 반항심을 갖는다는 차원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큰 의식차가 생겼다. 기성세대들은 6·25와 보리고개를 겪으며 가난을 체험했고 전통적 유교윤리와 식민지 통치의 권위주의의 경험을 1차, 2차적으로 겪었다. 그러나 반면에 민주적 질서의 경험은 적다. 반면에 청소년 세대들은 풍요속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생존의 욕구보다는 보다 풍요로운 생활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민주적 교육을 받아 부모와 선배에 대해 무조건적 권위를 인

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 양자간의 의식차는 원활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청소년 세대가 기성 세대의 가치관을 일탈하고 거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서도 정도의 차에 따라 비행 또는 나아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현실과 이상의 차에서 오는 갈등이다. 청소년은 유명배우나 가수의 사진을 갖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용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한편 장래 희망을 말하라면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명예로운 지위나 인물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타고난 소질은 제한되어 있다. 정규교육에서는 객관적, 보편적 윤리를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 어른들이 이뤄가고 있는 현실세계는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는 구체적 행동양식 속에서는 갈등으로 작용하고 정서적 도덕적 평형을 저해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기한 요인들은 모든 인간이 통과시켜야 하는 청소년기의 일반적 상황이지 구체적 비행의 원인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 요인들의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기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선도의 현황과 전망

청소년의 비행과 선도라는 문제는 사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어제 오늘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인류사회가 존재한 이래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나 지도자의 깊은 관심과 배려,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일탈이나 적응부진이 있기 마련이다. 실제 우리의 성장기를 보아도 모두에게 비행의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다행히 일시적 일탈의 가능

성이 비행에서 범죄로 까지 발전하지 않았던 것은 훌륭한 선생님, 좋은 부모님과 형제, 좋은 이웃들이 있어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주었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 빛나가 보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훌륭하게 된 사례도 우리 이웃에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범람하는 청소년 비행을 한 때의 홍역으로 가벼이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예전에 홀로 밤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위안이 되고 반가웠으나 요새는 사람을 만나면 더 겁이 난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웃집 미친개보다 이웃집 10대가 더 겁난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청소년 문제는 비단 한 인간의 성장에 대한 애정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호홉하고 살아가는 사회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청소년 선도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가 저마다 담당해야 할 일이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선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체육부에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집중시켰고 지난 5월 12일에는 청소년 현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청소년국에서는 청소년 선도 10개년 계획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나 현장이 탁상공론이 되지않고 살아 움직이는 로고스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와 아울러 교정 당국의 특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데 소년법의 제법률이 높고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교정기간중의 범행모의나 범죄기술 습득 때문이다. 학교나 사회단체의 상담활동이 있으나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에 일본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 청소년

선도 관련 서적을 구입코자 했으나 신간이 전혀 없었다. 이제 일본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교육개혁문제로 전환해 있었다. 구체적 비행에 대한 대중요법보다는 보다 근원적 치유를 위해 교육개혁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보면 대체로 일본의 사례를 10여년 정도 뒤따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청소년 선도대책의 전망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III. 청소년 비행과 의식구조의 변화

1. 현대 청소년 비행의 특징

1) 동기

현대 청소년 비행의 동기를 보면 과거와 자못 다르다. 70년대만 해도 물질적 풍요가 오늘날 같지 않아 범죄 원인 중 상당부분이 물질적 빈곤에 있었다. 삼십 수년전 필자가 학교 교육행정 책임을 맡고 있을 당시에 학생의 비행을 보면 체육시간에 벗어놓은 교복에서 잔돈 훔치는 일, 열자리 학생의 책을 말없이 자기 책가방에 집어넣는 일이 고작이었다. 남녀 학생의 문제라면 소위 연애편지 주고받다 들키는 일, 학교길에 남학생이 여학생의 뒤를 쫓는 일이었다. 학기금 일부를 잃어버리고 나면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울고불고하면 집에서는 찾아다니고, 용돈이 없으니 이웃집 닭이 알 낳고 울면 닭뎀어 들어가 계란 몇 알 훔쳐 먹었고 이때문에 이웃과 싸움이 벌어지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1973년에 만난 김모군(당시 16세)의 경우는

고어로 자라면서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을 하여 전전하다가 먹고싶은 것이 많아 택시 살인 강도를 저질렀다. 김군은 먹고 싶은 것으로 포도, 흰쌀밥, 사이다를 꼽았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런류의 범죄나 비행은 거의 없다. 빈부의 격차가 커져 상대적 빈곤이 문제가 되고 범죄 원인이 되지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히려 풍요가 문제되기도 한다. 요사이 각 국민학교에는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이 쌓여있단다. 가게에서 거스름돈 인받고 나가는 사례도 자주 본다. 일전에 강남에 유명한 모아파트앞 문방구점에서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백만원 짜리 자기앞 수표를 장난감을 사러 왔길래 가게 주인은 혹시 이 아이가 부모 몰래 가져온게 아닌가 하고 집에 전화했다가 아이 어머니로부터 오히려 무안을 당했단다. 이렇게 물질의 귀함을 모르고 쉽게 낭비하며 자란 아이는 자연히 사치하게 되고 땀흘리는 수고를 모르게 된다.

최근 소년 범죄의 동기를 보면 유흥비 마련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요컨대 과거에는 물질적 빈손이 문제였으나 요즈음은 상대적 빈곤에 따른 욕구불만이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지는 문화적 빈곤이 문제이다.

현대 청소년 비행의 동기면에서 본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에는 동기가 분명했으나 요즈음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발성, 충동성이 강해졌다는 얘기다. 목적없이 저지르는 소년 범죄가 1982년에는 전체 소년 범죄의 12.5%였으나 1988년에는 무려 두배이상 증가한 27.0%를 보이고 있다(청소년 백서 1987년, 1989년판).

일전에 어느 강도·강간범의 경우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삼아 지나가는 여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후 쉽게 목적이 이뤄지는 데에 재미를 느껴 상습 강도·강간범이 되었다는 진술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대부분의 청소년 성범죄는 충동적이고 무목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양태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날로 조직화, 흉악화, 폭력화하고 있다. 강간범이 피해자측의 합의를 못 얻어내 실형을 살게되자 출옥 후 피해자를 학교와 동사무소를 통해 추적하여 찾아낸 후 피해자 어머니를 난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고등학생은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 친구를 사귄다고 양심을 품고 자기 친구를 동원해 윤간해 버렸다. 부산에서는 청소년들이 여자 들을 윤간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바다에 빠뜨렸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구조된 사건도 최근에 있었다.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이라고 전기질로 목졸라 죽인 사건도 있다.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있을 법하지 않은 극악한 범죄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 전에는 도둑이 들어도 들키면 도망갔으나 요즈음은 으레 성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한다. 죽지 않으려면 모르고 자는 척하거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고분고분해야 한다. 더우기 최근에는 일본·홍콩 등지의 폭력 범죄 영화의 영향으로 사무라이를 본뜬 총성서약을 맺고 일본도, 도끼, 낫으로 무장한 청소년 폭력 조직이 눈에 두드러진다.

최근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양태에 있어서의 또다른 특징은 과거의 자기현시적(自己顯示的) 양태보다 차츰 자폐적(自閉的) 양태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비판적 경향보다 현실도

피적 경향도 커진다. 통상 사춘기의 영웅심이 남자는 더욱 남자다와 보이려고 폭력화하고, 여자는 더욱 여자다와 보이려고 화려한 화장이나 선정적 차림을 과시하게 했다. 그러나 요즘은 마약사범의 증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자폐적 경향의 비행이 늘어난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1984년 20건에서 1988년 393건으로 무려 65%나 증가했다(청소년 백서 1989년도판). 본드나 부탄가스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확각제가 청소년들의 탐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확각제는 일시적 일탈로 수습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히 신체적, 정신적 과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파괴적이다.

3) 비행의 주체

과거에는 “문제아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고 문제학생 뒤에는 문제교사가 있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종전과 달리 결손가정 아닌 정상가정 청소년들의 비행이 점차 늘고 있다. 작년 영동 모국민학교 여학생 살해범으로 붙잡힌 중학생은 부모가 모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 절도범으로 붙잡힌 청소년들이 모두 부유층 인사의 아들들이라서 한번 놀랐고 자식을 인도하려 온 부모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또 한번 놀랐다는 어느 경찰관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즘 청소년 비행 주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소화하는 것과 학생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복 자율화 이후 학생들의 유흥장 출입, 흡연, 음주, 성문제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아울러 부족한 유흥비 조달을 위한 절도·강도 등의 범죄가 부수적으로 증가한다.

2. 비행 청소년의 의식구조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 자신은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경우 비행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뿐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마운줄 모르고 배은망덕한다. 자신의 일에는 적극적이고 남의 일에는 소극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인다. 악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무시한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충동성과 몰염치한 면모를 보이고 인내력과 자기억제력이 부족하다. 지식은 있어도 정신적 교육은 미흡하여 선악판단이 흐리다. 욕구불만에 차있고 환경에 쉬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이들 비행 청소년은 보통의 청소년과 어떤 생득적 차이가 있는 것인가? 흔히 비행과 지능을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하지만 직접적 관계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이크 부처(夫妻)가 비행 청소년 500명과 보통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명적 각 측면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이 보통 청소년보다 언어성 지능이 낮다고 한다. 어휘, 상식, 이해도가 열등하고 추상적 추리 능력, 주의 집중력, 지속력, 정서의 안정성 등은 떨어지며 반면에 물질, 실제적 처리에는 앞선다고 한다.

한편 샤프텔 E. G. Schachtel 의 비행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권위에 대해 반항적이고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며, 의욕적이고 파괴적이며, 실패와 패배, 공포에 고민하지 않고 모험적이고 충동적이며 무반성적 경향이 많다고 한다. 감별소에 수용된 청소년은 일반 중고교생과 비교할 때 인격의

가소성(可塑性)이 결핍되고 감정생활도 결핍되어 미성숙한 상태이며, 내성력(內省力)과 자발성이 없고 새로운 장면에 순응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개인심리적 차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일면 유효하기도 하지만 현대 청소년의 비행이 전술한 바와 같이 주체가 넓어지고 동기가 없어지며 물질적 빈곤 이외의 다른 문제에서 기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특정 청소년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오히려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 빈부 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혼란, 교육문제의 누적 등 사회병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회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수의 특정 청소년에 의해서 행동으로 노출되었을 뿐이지 현대를 사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 일반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청소년의 의식구조

1) 의식구조의 의미

‘의식구조’란 개념의 엄밀한 정의는 전문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간단히 ‘어떤 사태에 대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틀’이라고 이해하자. 그런데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생각하려면 먼저 그들의 심리적 특질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심리적 특질과 가치관의 성향 및 상호관계, 이에서 표현되는 태도 등 3자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2) 심리적 특질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사회규범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몇가지 특징적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첫째, 자아정체성이 혼동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의시대는 행동을 하거나 과소평가하여 공연히 소외감에 빠지고 고독해지기도 한다. 둘째 권리는 행사하려 하되 책임은 지기 싫어한다. 어른이 되고 싶어 흡연, 음주를 하기도 하고 간접반기는 죽어도 싫어하지만 영원히 책임지지 않는 청소년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 셋째, 질서와 문명, 권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저항한다. 넷째, 자제력과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내는 병리적 현상은 우울증, 식욕감퇴, 대인공포증 등이 대표적이다. 고삼병(高三病), 대사병(大四病)처럼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조절기능을 저해하여 위궤양, 고혈압, 불면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일본에서는 육무주의(六無注意)라 표현하는데,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예절, 무사상으로 요약된다.

3) 가치관

청소년기 의식구조의 가장 주요한 특질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관이 혼재하여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온정주의와 합리주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인간주의와 물질주의, 편법주의와 정당주의, 귀속주의와 업적주의 간의 갈등들이(한국청소년연맹, 연구보고 17참조). 이들 가치관 갈등의 양상은

대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자기세대 내부에서 양자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며칠전 모여대생이 씨클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합리주의적 사고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대학생 집단, 그것도 폭력적 성격이 덜한 여학생 집단에서 집합주의를 강조하는 구타라는 행태가 빚어짐은 놀라운 일이다. 사실 이런 류의 갈등은 정의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지는 대학생의 데모에서도 드러난다 하겠다.

흔히 요새 중고등학생이 너무 이기주의라서 옆자리 친구한테 노트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의 모교 사이의 편싸움에서 보듯이 유난히 집합주의가 강한 사람도 바로 그들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몇가지 성향은 두드러진다.

첫째, 물질주의 성향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물질적 성공이 우대받게 되고 자본주의적 윤리가 전통윤리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물질주의가 우세해졌다. 요새 국민학생도 아파트 평수대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있다.

둘째, 이기적,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도시화, 핵가족화를 불가피하게 했고 특히 자녀도 한 두명밖에 낳지 않고 최대한 불편없이 애정을 쏟게 됨에 따라 형제 많고 식구 많던 시절과 같은 사회적 역할분담의 경험을 가정에서는 해보지 않게 되어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간다.

셋째, 편법주의적 성향이다. 최근 제조업에서는 근로자가 부족하여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데 술집아가씨는 팔십만을 넘는다 하고 공사장 인부가 없어 공사가 안되는데 실업률은 날로

올라가는 현상에서도 보듯이 땀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벌려 하는 경향이 심하다. 뇌물과 속임수로 결과만 획득하려는 기성세대의 경향을 반영하여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범람하는 시험컨닝 등을 편법주의와 소아적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그외에 전통적 권위주의, 도의적 예의주의, 집합주의, 체면주의 등에 저항하고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업적주의를 지향한다(이재창 외, 1983).

4) 자신 또는 주변에 대한 태도

첫째, 청소년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바라보는 시기이다. 거울을 자주 보고 용모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내면도 점검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하며 살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신의 인생관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구체적 사회적응에 요구되는 능력과 노력에 대해 자신을 평가하고 행동양식을 규정한다. 여기에서 원망과 현실적 제약여건 사이에서 좌절도 하고 자만도 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부모는 자식을 늘 어린 아이로만 인식하기 쉬운데 청소년은 자기의 가치관이 무시되는데 반발하고 부모의 사고방식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거부한다. 이런 경향은 부모의 사고방식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거부한다. 이런 경향은 부모를 의논상대로 상정하지 않게하고 오히려 친구나 친척 어른이 쉬운 상대가 되게 한다.

셋째,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해 눈을 뜰 때이다. 청소년기 이성에 대한 동경은 대개 동년배

보다는 훨씬 성숙한 연상의 이성에게서 찾기 쉽다. 그 실례로 유명 연예인이나 선생님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역으로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수줍어 하고 피하는 등 양극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욕구들은 정상적으로 사회규범의 통제 속에서 승화될 때에는 자신을 보다 완전한 인격체로 성숙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사회규범을 일탈할 때에는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 청소년기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배운다.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던 아동기를 벗어나면서 동년배 집단에서의 역할분담과 관계 인식이 자리잡는다. 최근 어느 고등학교에서 정신 질환을 약간 앓은 학생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이코라고 놀림을 당하자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 이웃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여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극단적 행동을 취한 예이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전적으로 의존상태이던 가정에서 점차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구체적 역할을 확립해 가고 이 과정이 사회관계로 확장 적용된다.

IV. 청소년 선도의 새로운 지평

1. 청소년 의식구조의 형성배경

1) 가정환경

오늘날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질과 가치관, 태도에 대해 살펴 보았거니와 청소년 선도의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의식구조의 형성

배경을 알아야 한다. 즉 그 배경에서 일탈이나 비행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도가 되는 것이다. 그 첫번째로 가정환경을 살펴본다.

과거 농경시대의 가정은 생활의 전체였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과 함께 노동하면서 자식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고 지도하였다. 여자의 경우라면 가사노동의 전과정에서 어머니가 딸을 관찰하고 지도했다. 그러나 현대의 아버지는 생활비의 획득을 위하여 종일을 가정에서 떠나있게 되었고 자녀도 교육제도의 고도화에 따라 종일 가정에서 떠나있다. 따라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현저히 축소되었고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단절은 상호 가치관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부권사회에서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경우 중재 또는 판결의 권한이 아버지께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어찌하든 해결은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남녀 성구분 없이 평등해지고 부권의 권위가 부정됨에 따라 의견의 상충시 해소장치가 없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가치관 갈등은 매우 심한 형편인 것이다.

2) 학교환경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다기화, 전문화 됨에 따라 예비적 교육기관이 길어져서 학교가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개인이 타고난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상급학교 진학 자격의 선별과정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율성을 길러주기보다는 선별에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고 주입 정도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선별되는 소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탈락 청소년은 패배감,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만 안게 되고 결국 소수를 위해 들러리 서는 역할만 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공동체 의식을 빼앗고 협동심보다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길러준다. 거기다가 학생수의 과다, 업무의 과다 때문에 교사는 고민하는 청소년과 대화하고 상담할 기회가 적다. 청소년들은 불가피하게 대화의 상대로 친구만 택하게 되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우월성이 없으므로 함께 비행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3) 사회환경

전통사회에서는 거주의 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락사회 자체가 훌륭한 사회통제 장치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모든 개인은 익명의 섬에 놓이게 되어 성장기의 청소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로 떠들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공연히 개입하였다가는 망신당하거나 폭행당하기 일쑤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기존 가치관이 사회규범으로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지주가 되지 못한다.

이런 성향은 한국 정치문화의 저급성과도 관련이 있다. 왜정시대는 둘째치고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과정은 정통성에 손상을 입히면서 발전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실력저지, 날치기 통과 등 수준 낮은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배경으로 청소년층의 저항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기성세대의 정치관은 청소년 세대의 정치관 형성에 별로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직장의 사회통합적 기능도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노사관계의 정상적 정착을 저해했다. 그런 조건에서 직장의 선배가 되는 기성세대는 현상고수를 추구하고 청소년 세대는 현상타개를 추구하면서 대립되어 실제로 노사분규의 양상을 보면 청소년기의 무절제와 미숙함이 많은 피해를 낳는데도 기성세대가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다만 소극적으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보탬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폐해도 심하다. 자본주의의 상업성과 함께 발달된 향락산업과 대중문화는 청소년에게 성의 개방, 소비지향, 쾌락지향의 성향을 강화했다. 충실한 생리적 요구를 승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장치는 없고 이를 자극하고 직접적 분출로 유혹하는 기제는 매우 많은 것이다.

이밖에 학교에서 배운 정의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현실을 보면서 정당주의보다 편법주의를 택하게 되었고,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과 함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물질적 성공이 존중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가 강화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던 전통문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서구문화의 인간중심주의, 평등주의에 밀려났다. 이와 함께 모든 기성의 가치체제는 비과학적, 비민주적, 전근대적 가치체제로 취급되고 그 자리에 서구의 새로운 가치체제가 들어오면서 기성세대의 가치관 일반이 권위를 잃었다.

2. 선도의 대상과 방법

이렇게 보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최선의 선도는 예방이요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가치관 확립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제도가 바뀌

어야 하며 가정에 대화의 채널도 만들고 권위도 세워야 한다. 선도의 대상은 어쩌면 선의의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바로 이를 가능케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은 인공 두뇌를 탄생시켰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굴복시킬 정도로 놀랍게 발달했다. 앞으로 우주공학과 생명공학은 인간을 어떤 경지에 올려 놓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과학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은 수십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 청소년의 의식구조도 변하고 범죄의 양상도 날로 흉포화하는데 이를 선도하고 방지할 대책은 묘연하다. 일전에 호남지역에 2,000년대의 과학발전을 담당할 광대한 과학단지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세계 강국에 뒤지지 않는 국가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역사(役事)임에 틀림없으나 교육이 실패하면 산업이 어떻게 서며, 인간교육 없이 과학교육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간 유흥비로 탕진하는 돈이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급선무가 사회의 의식개혁과 교육제도의 혁신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만사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 전사회적 개혁은 쉽게 이뤄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로서 비행 청소년은 교화하고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방법은 왕도가 없다. 충심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다.

20여년 전에 “엑소시스트”란 외국영화가 수입·개봉된 적이 있다. 그 줄거리를 보면 부모가 별거하여 외롭게 자라던 한 소녀가 애정의 결핍과 소외감 때문에 정신이상(악마에게 사로잡힘)이 되었는데 이 소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

하여 온갖 수단을 써도 낫지 않다가 한 신부의 목숨을 건 사랑과 믿음 덕분에 나았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에서 칼라스 신부는 다른 신부가 오히려 악마에 의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각오한 기도를 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필자의 선도활동의 역사가운데 좀 특이한 사건으로 10여년전(1976년) 17명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김대두와의 만남이 있었다. 김씨는 17명을 살해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면서도 죄과를 뉘우치기는 커녕 담담했다. 돈이 필요한 데 돈가진 사람이 안주니까 죽이고 돈을 빼앗았는데 뭐가 죄되느냐고 반문하고는 자살을 기도했다가 목비권을 행사하다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10여명의 신부, 목사들이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필자가 그를 만날 결심을 하고 찾아가 만난 후 아우같이 사랑하고 충심으로 권고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 즈음에 법정 살인사건의 범인 임병석과의 만남도 인상적이다. 임병석은 재판도중 검사와 판사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애인의 아버지를 죽였다. 1976년 12월 필자가 임병석의 교회(敎誨)를 위해 방문을 했는데 양손은 수갑이 채워져 있고 온몸이 포승줄로 묶여 있었다. 얼굴은 사나운 사자처럼 험상궂게 생겨 살기 마저 느껴졌다. 필자는 먼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수갑과 포승줄을 풀게 하여 그의 마음을 열게 했다. 솔직이 처음 그와 마주할 때의 심정을 죽음을 각호한 비장감이 있었다. “주여! 저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내리시어 그 영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하며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혼신을 기울여 기도하였다. 김대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병석도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열고 온화하고 평범한 자기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와, 자진해서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고, 필자의 꿈이 있다면 상담의 기술이나 체험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기울인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3. 세대간 가치관 차이의 극복

오늘날 어른들은 자라는 아이의 새로운 가치관에 당황하거나 문제아 또는 반항아로 간주하는 한편, 청소년들은 부모를 그저 공부하라고 덕담만 하고 매사에 금지하고 수속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등 서로를 보는 시각이 대체로 대립적이다.

오늘날같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성세대의 가르침이 청소년의 생활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아니, 나아가 해마다 봄이 와도 돌아나는 풀은 새풀이 듯듯이 낡은 것이 가고 새것이 오면서 사회가 유지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기성세대는 청소년 세대와의 가치관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 기성인이 청소년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덴먼저 생활세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지 청소년이 미숙해서 생기는 문제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미숙성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인내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생활세계가 달라서, 곧 가치관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면 좀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혹자는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무조건 복종을 강요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청소년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되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당당히 내세워 조화를 찾으려 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에 기존 가치가 일체의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면 발전이란 있을 수 없고, 또 기존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의 신중한 취사선택이 없어도 의미있는 발전이 없다(전병재,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관계 자료집 제2집”).

V. 맺는말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나라의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짚어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떤가? 우리나라 젊은이도 아직은 비판도 낙관도 할 수 없다.

신체적 장애는 개인에게 국한되지만 정신적 장애, 청소년의 비행은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병리현상이다. 또한 그 배경에 사회적 원인이 작용했으므로 사회가 저야할 책임은 크다.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베드로 광장에 모인 20만 청소년에게 “젊은이여! 마약과 테러, 섹스 등 ‘죽음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공기오염, 식수오염, 사회환경의 오염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는 이들 환경오염보다 훨씬 중요하다. 한강이 맑아야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먹을 수 있듯이 한국의 미래를 짚어지고 갈 청소년 문화가 맑고 건전해야 우리나라의 장래도 밝다. 현재의 젊은이가 장래의 좋은 주인공, 계승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과 관심을 기울이자.

참 고 문 헌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 복지사회심포지엄 현대사회와 청소년
- 이재창 외(198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교육개발연구원
- 안재정(1974), 어둠에서 빛으로
- 안재정(1982), 청소년의 의식과 비행, 비행선도총서1
- 안재정, 저 생명강가로
- 안재정(1983), 사춘기·청년기
- 안재정(1988), 한 평생을 청소년과 함께
- 청소년육성위원회(1987,1989), 청소년백서
- 청소년육성위원회(1989), 청소년백서
- 한국청소년연맹(1986<제3판>), 연구보고총서 제4집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관계 자료집 제2집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9), 공단 근로청소년 문화현상 연구